DAY 24 · 3부 뭘 할 수 있나

말로 설명하면 코드가 나오는데, 왜 거기서 안 끝날까 — 코딩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9월 30일

코드를 받는 건 시작이고, 돌려 보는 순간부터가 코딩이야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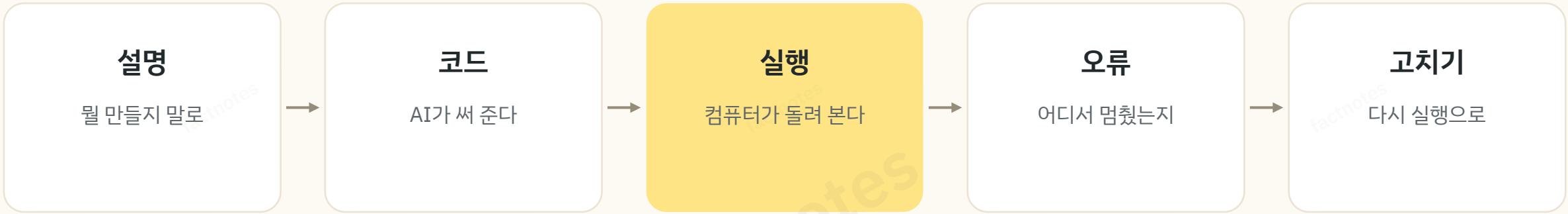
1. 말로 설명하면 코드가 나오는 건 맞아. 그런데 **코딩의 진짜 절반은 코드가 나온 다음**에 있어 — 실행하고, 오류를 읽고, 고치는 일.

2. AI가 쓴 코드는 **돌려 보기 전까지 맞는지 아무도 몰라**. 그럴듯하게 생겼는지가 아니라, 실행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가 답을 정하거든.

3. 그러니까 빨간 오류 메시지는 혼나는 게 아니라 **어디가 틀렸는지 알려 주는 쪽지**야. 그걸 통째로 AI에게 보여 주는 게 제일 빠른 수리법이야.

그림 한 장으로

코딩은 한 줄이 아니라 한 바퀴



주황 칸이 심판이야. 코드가 맞는지는 사람도 AI도 아니라 실행 결과가 정해.

핵심: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맞는 코드가 아니다

코드 한 줄이 돌아가기까지의 순서

처음부터 끝까지

1. 뭘 만들지 말로 설명
2. 코드가 나온다
3. 실행해 본다
4. 오류가 뜬다
5. 고쳐서 다시 실행

코드가 나온 뒤에 세 칸이 더 있다. 마지막 두 칸은 보통 여러 번 돈다 — 그게 정상이…

오류를 만났을 때

1. 오류 메시지를 복사
2. 몇 번째 줄인지 본다
3. AI에게 그대로 준다
4. 고친 코드를 실행
5. 되는지 눈으로 확인

오류 메시지에는 어디서 멈췄는지가 적혀 있다. 요약하지 말고 통째로 주는 게 제일 빨라.

크게 만들고 싶을 때

1. 작게 쪼개서 시킨다
2. 한 토막씩 실행
3. 되는 걸 확인하고 다음
4. 마지막에 전체 실행

토막마다 확인하면 고장 난 곳이 바로 보인다. 한꺼번에 시키면 코드는 길어지고 원인은 숨…

섞인 조각을 순서대로 눌러 봐. 게임 하나를 만들든 숙제 표를 정리하든 이 순서는 똑같아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24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AI가 코드를 써 줬어. 맞는 코드인지는 누가 정할까?

① 실행해서 나온 결과가 정한다
② AI가 자신 있게 말하면 맞다
③ 코드가 길면 맞다
④ 오류가 없으면 무조건 맞다

Q2 오류가 떴을 때 AI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까?

① '안 돼요'라고만 쓴다
② 오류 메시지를 통째로 보여 준다
③ 코드를 지우고 다시 시킨다
④ 오류를 요약해서 전한다

Q3 큰 걸 만들 때 요령은?

① 한 번에 다 시킨다
② 코드를 길게 쓴다
③ 작게 쪼개 한 토막씩
④ 오류를 무시한다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① 그럴듯하게 생긴 코드와 돌아가는 코드는 다르다. 컴퓨터가 실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지가 유일한 심판이야.

Q2

② 오류 메시지에는 몇 번째 줄에서 왜 멈췄는지가 적혀 있다. 줄여서 전하면 그 단서가 사라져.

Q3

③ 토막마다 실행해 확인하면 고장 난 곳이 바로 보인다. 한꺼번에 시키면 원인이 긴 코드 속에 숨어 버려.

코드를 받는 건 시작이고,
돌려 보는 순간부터가 코딩이야.



내일은 그림 그리기 — 설명을 자세히 할수록 그림이 정말 내 머릿속과 닮아질까.